

1월 7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신봉준 목사 “(5)후대 영원, 치유 영원, 237 선교 영원” (사49:8)

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사49:8

■ 오늘 새벽으로 2024년 시작하면서 시작된 특별
새벽기도회는 끝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도회가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램넌트들 새벽기도회에 이번 주간에 많이 참여
하셨습니다. 우리 학기를 앞두고 우리 램넌트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도 또 새롭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작
년과 같이 램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램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싸움에 승
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들
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특별 새벽기도회로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제1, 2, 3
응답의 영원’ 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기업을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고, 영원의 작
품을 응답으로서 준비해야 되고, 영원의 유산은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함으로 후대에게 언약이 들
어가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에 영원의 언약 붙잡고, 영원
의 작품 집중하면서 누리면서 영원한 유산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영원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실 귀중한 축복은 바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
는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래
서 이 한 해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또 우리의 산
업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교회에 속한 모든 현장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교회에 주신 기도제목들이죠.
세 가지 후대, 치유, 237 선교 놓고, 함께 말씀을 좀
붙잡고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말씀들을
성취하실 것인가 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
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1. 후대 영원

먼저 첫 번째 후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가
는 49: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르
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

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램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램넌트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램넌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또 너
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
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램넌트 시대를 여시겠다 라는 거예요. 램넌트
언약을 주시면서 땅 끝까지 램넌트 시대를 여시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램넌트 시대를 열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이 램넌트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7절 한번 보세요, 마지
막 부분이죠.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된다.”,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램넌트 언약을 붙잡고, 램넌트 시
대를 열게 될 때에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시대시대마다 램넌트들은 왕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램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를 하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 왕 앞에 섰고요, 모세도 왕 앞에 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다윗도 왕 앞에 섰고요, 엘리사도
왕 앞에 섰고요. 또한 다니엘, 세 친구도 왕 앞에 섰습
니다. 그 시대시대마다 남은 자들, 램넌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왕 앞에 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램넌트들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를 하였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로 우리
램넌트들을 세계복음화 하는 귀한 엘리트들로 세워나가
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올바르게 영성과 지성을 가진 램넌트
들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과 실력을
가진 램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금, 토, 일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현장, 왜 젊
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금, 토, 일 시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한국도 금, 토, 일 시대가 왔어요. 캠
핑 문화로 말미암아 캠핑카들, 뭐가 전부 다 캠핑 문화
로 말미암아 주말 되면 다 떠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
다 이미. 거기에 우리 후대들조차 다 빼앗길 것입니
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금, 토, 일 시대를 붙잡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귀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를 살리는,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사

람들로 어느 날 바뀌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우리 램넌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치유 되어지고, 토요일날 모여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또 한 포럼들이 되어지고, 인턴십이 되어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음껏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요. 사실 주일은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금, 토, 일 시대 열어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심을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게 하고요. 달란트를 찾게 될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현장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디어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콘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뒤쳐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거기에 잠잠하다가 뒤쳐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된 달란트와 전문성과 실제로 현장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야 현장에 지지 않습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나가니까 불신자 친구 만나서 불신앙에 이끌리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또래또래 끼리의 문화라고 현장에 불신자 친구 만나가고 불신앙에 영향받고, 불신앙에 이끌려가게 돼요. 이게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나가니까 아이들이 뭘 합니까? 결국 세상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제는 제대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성을 가지고, 시스템 완전 300% 딱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리드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안 됩니까? 복음이면 됩시다 사실은. 그걸 놓쳐버려서 그렇지, 복음이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사실은 복음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 문화 속에,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미신 섬기고, 점술 따라가고, 그게 한국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문화들을 바꿔 놓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영적인 기업이 심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게 될 때 이

후대들을 통해서 현장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된다는 것, 이 일을 이제는 교회가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기도제목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평생에 교회 기도제목으로 붙잡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릴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후대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후대들이 작품이 되어지도록, 그게 영원의 응답이에요.

2. 치유 영원

두 번째입니다, 치유입니다. 49:19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파멸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치유의 축복을 주시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된 잘못된 망대부터 치유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한, 내 생각과 계획이 최고로 생각하는 나 중심한 오래된 잘못된 망대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지고요, 원망과 불평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왜 상처들이 갈수록 깊어집니까? 나 중심한,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망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한 진을 내 안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상처들이 계속 쌓입니다, 여러분 원망함이 계속 쌓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 한번 보세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요. 젊은이들 속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잘못된 견고한 망대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옥하면은 ‘어찌 저럴 수 있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들을 가득 안고 모두가 살아가요.

그것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에서 찾아지느냐?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내가 발견 되어져요. 말씀 속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진정한 역사와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야 우리의 잘못된 견고한 진인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에 여러분 매일매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뭔가 여유함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시작하고, 한 주, 한 주 시작하고, 하루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조금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참된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땅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은 명상운동으로 빠져들었어요. 명상운동의 주인은 뭘니까? 나입니다. 명상운동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고요, 그게 각인되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문 외워보세요, 그게 전부 다 각인 됩니다. 각인되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거기에 한 번 맛보면 빠져들어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에 딱 잡하게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묵상하면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돼요. 또다시 들려지면서 각인돼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니까 그냥 묵상하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서 기도하면 여러분 말하는 그 순간에, 또 그게 내게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 각인돼요.

주문이 그렇게 해서 자꾸 주문하잖아요? 자꾸 뭔가 주문하면 나도 모르게 각인 되어지면서 각인되는 그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뭘까? 능력이 나타나요. 각인되니까 각인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어느 순간에 보면 네피림에 딱 잡혀요. 그 네피림은 뭘니까? 결국 뒤에 배후에 사탄, 마귀에게 점신 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사탄, 마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에 조정받는 네피림에 딱 붙잡혀서 영적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상운동이 아니라 묵상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때도 여러분 뇌는 돌아갑니다. 잘 때도 여러분 뇌는 돌아요. 언제 여러분 뇌가 쉬게 되느냐? 여러분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뇌는 묵상할 때 많은 호흡을 통하게지고 뇌가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깊은 호흡들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육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뭘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도 어릴 때부터 정말로 묵상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일수록 명상운동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지고 뭘까?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치유는 여러분 모두가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치유한다? 물론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서 치유 받는다? 물론 필요하겠죠. 여러분 개인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으리라 했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그게 정상적인 치유예요.

그렇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 개인이 정말로 복음만큼 치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복음 붙잡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것이지, 정상적인 치유는 여러분 개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 받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잖아요? 고해성사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치유되고, 해결됩니까? 아니예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직접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치유 받고,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여러분 개인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치유 되어짐으로 이 한 시대, 병든 시대를 살리는 치유의 증인들로 치유의 작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느냐? 병든 사람이 어디로 찾아가느냐? 이상한 곳으로 찾아가요. 신천지 찾아가고요, 3단체 찾아가고요. 왜?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3단체 찾아가고, 신천지 찾아가요. 여러분 신천지 찾아가는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빨리 이런 시스템

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된다면 상관 없는데 진정한 치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영적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시대에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귀한 축복된 작품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237 선교 영원

세 번째입니다, 237 선교입니다. 6절에 이방의 빛을 삼켰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습시다마는 22절에 보세요, 49:22절.

“주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못 나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겠다,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계복음화, 거기에 많은 딸들과 아들들이 올 것이다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237 선교를 모른다면 노예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237 복음화 이루게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 했잖아요?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겠다, 기치를 들겠다. 그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237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졌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 되고, 유랑민으로 흩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37 나라 강대국을 보는 눈을 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237 강대국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되어져서 결국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산업도 세계복음화, 237 선교와 맞아야 하나님과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뭐냐? 237 선교를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학업을. 그냥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예요, 여러분은 달라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방향도 뭐

냐? 어떻게 하면 내 학업을 통해서 237 선교의 귀한 축복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후대들이 멸망 받습니까?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후대가 멸망하느냐? 세계화 몰라서 멸망 받고요. 왜 재앙이 오느냐? 복음화가 안 되어서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틀린 237 운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후대가 멸망 받느냐? 세계화가 안 되면 후대가 멸망 받아요. 왜 재앙이 일어나느냐? 복음화가 안 되어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틀린 237 운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해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일을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때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왜냐? 세계화 안 되어서, 복음화 안 되어서, 틀린 237 운동 때문에 멸망 받고, 재앙 받고,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237 세계복음화에 그 속에 내가 있는가?’, ‘우리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그 속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237 선교와 연결되어 있느냐? 나의 삶이,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느냐? 또 우리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그 속에 정말로 우리가 그 속에 내가 있는가? 우리교회가 있는가? 그 사실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후대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되 내가 특별히 어디에 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237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 분들은 한 나라에 망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한 나라에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모든 렘넌트들은 한 나라를 놓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 준비 중의 하나가 뭐냐? 언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놓고 언어를 준비하고, 모든 중직자 분들은 한 나라 정도는 내가 나의 산업이 책임지고, 살려

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나라의 망대를 놓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237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대, 치유, 237 선교를 놓고 영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걸 놓고 24 하세요. 그냥 여유를 가지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24. 내가 어디를 찾아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여유있게,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24예요. 그 속에 25 응답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25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25의 응답과 함께 재창조 되어지는 영원의 축복, 작품이 되어지는 영원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된 역사 속에서 이 한 해 정말로 영원의 응답과 함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교회 자료팀

국장 : 김상진 장로 / 팀장 : 조재호 집사(choddq@hanmail.net)
유튜브 채널(대구하나교회) : <https://www.youtube.com/ihanachurch>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hanarutc>
교회 홈페이지 : <http://www.ihanachurch.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5 (우. 42748)